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韓 鍾 愚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눈으로 본 同窓會 1988년

活性化 이룩했던 한 해 : 戊辰年은 동창회의 각종행사가 그 어느해보다 活性化되었던 한해였다. 주요행사로 〈사진〉 ① 母校 88년 졸업식전, ② 동창회 88년 정기총회, ③ 상과대학 정기총회, ④ 법과대학 정기총회, ⑤ 모교 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올림픽 탁구경기장.

冠岳春秋

88년을 보내며

多事多難했던 88년도 저물고 있다. 第5共和政이 물러나고 第6共和政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많았다. 2·25大統領취임식을 앞둔 組閣에 많은동창이 입각하였고 4·26총선에서는 동문이 國會議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영광이 컸다. 國會요직도 우리同硯들이 차지하였고 大法院개편에서나 憲法裁判所구성에서도 동문들의 기여는 결정적인 것이었다.

모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올림픽卓球에서 韓國男女가 다 우승을 차지하여 국민들의 感激을 유발한 것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비록 모교출신들이 우승을 하지는 못했을 망정 世界人의 축제를 祖國에서 치룰 수 있었다는 것만도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다. 12년만에 東西양진영이 모두分斷國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도 기록적인 것이었다.

올림픽을 계기로 東歐圈과의 수교가 트이기 시작하였으며 北方政策의 획기적인 전개가 기대되고 있다. 소련 中共과의 수교로 北韓과의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戰略이 주효하고 있다. 통일을 향한 점진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國會像備會談을 비롯한 여러 채널이 가동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戰爭의 위협에서 해방되어 平和속에서나마 생활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정기국회에서의 國政監査와 聽聞會로 5共非理와 光州事態 言論統廢合등 누적된 비행이 드러나 전국이 들끓었다. 全前大統領은 사과, 헌납, 낙향하였지만 이로써 일단락될 것 같지 않아 불안하다. 20개부처에 걸친 新組閣이 행해짐으로써 동문長官들의 수는 줄어들었고 强性이미지의 인상이 짙다. 새로운 內閣의 출범과 당직개편으로 5共을 청산하고 6共의 진로가 탄탄해지기를 바란다.

母校서의 학생소란도 局部的이기는 하나 계속되고 있다. 總長室占據破壞로물의를 일으켰던 학생회는 그 뒤 개편되어 보다 온건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過激學生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他大學에서는 학내문제와 등록금인상반대 등으로 수업이 거의 불가능한 처지에 이른 곳도 많다. 사건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만연되고 있다. 勤勞者들의 단체행동뿐만 아니라 심지어 敎師들의 집단행동까지 자행되고 있다. 불루칼러 勤勞者뿐만 아니라 인텔리에 이르기까지 집단행동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집단행동이 아니고 言論, 出版으로써도 문제가 해결되도록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겠다.

지난 1년은 5共단절의 소용돌이속에서 지샌 것 같다. 聽聞會와 國政監査로 5共非理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과거의 非理척결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4共비리와 3共비리의 척결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청산없이 미래의 設計가 불가능하다고보는 견해도 많다. 日本帝國主義에 아부하여 同族을 못살게 굴던 親日派에대한 응징이 없었기에 民族正氣가 죽었다고 보는 입장이 많다. 3共비리 특히 5·16軍事쿠데타의 척결이 없었기에 5·17이 일어났다고 보겠다. 만약에 5·16군사쿠데타가 반란행위로 처벌되었다면 군사쿠데타의 재발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維新獨裁의 비리가 척결되었다면 5共獨裁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5共비리를 척결해야만 6共의 민주화가 달성될수 있다고 보는 理由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에만 집착할 수는 없다. 과거는 청산하되 미래를 위하여 設計하여야한다. 3천弗소득에서 머물러서는안되며 우리의 外債 3백億弗도 조기에 상환해야 한다. 계속적인 成長을 위하여서는 國民이 안정속에서 經濟活動과 社會活動을 하여야 한다. 안정속의 成長을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政治安定과 社會安定이 선행되어야 한다.

與小野大의 정국하에서 정치의 안정을 책임지는 사람에는 與黨 아니라 野黨도 포함된다. 與黨은 12·5改閣에서 책임政治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것 같은데 野黨이 과연 정국안정에 기여하려고 할지는 미지수이다. 大統領制下에서 정치의 책임은 大統領에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議院內閣制的要素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國會를 구성하는 政黨들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하겠다.

내년의 飛躍的發展을 위하여 國民들은 합심하여 정국안정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정국안정없이는 經濟成長도 없고 政治改革도 없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經濟의 성장을 계속하기 위하여 89년에는 안정속의 改革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同門들도 祖國의 번영을 위하여 合心努力하여야 하겠다.

90년 初「會員名簿」발간

同窓會 창립 20주년 기념事業으로

製作費전액 広告料로 충당
販賣代金 장학금으로 積立

本會는 내년으로 創立 2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同窓會員을 그 기념사업으로 「會員名簿」를 발간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23일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제1백1차 常任理事會에서 토의 결정된 것인데, 이 계획에 따르면 약 1년 4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늦어도 90년 2월 중에는 會員名簿를 간행한다는 것이다.

동창회에서는 이를 위해 조만간 母校總長 企劃室長 學籍課長 그리고 각 단과대학 同窓會長으로 구성된 名簿編纂諮問會議를 개최하여 명부발간에 실무적으로 참여할 편찬위원의 위촉과 모교에는 學籍등에 대한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名簿刊行작업은 본회 임부회장을 委員長으로하는 實務편찬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곧바로 착수될 예정인데, 사무처에서 이를위해 동창회관 4층 느티홀에 發刊室을 이미 설치해 놓고 있다.

◇ 제 101 차 常任理事會광경

「同窓의 날」 성황

藥大 바둑 테니스 골프등 다채롭게 진행

藥大동창회(회장禹東一)의 동창의 날 행사가 지난 10월30일 등산대회를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다.

지난 9월14일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10월15일 바둑대회 16일 테니스대회 30일 등산대회로 이어진 이번행사는 각 경기마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30일에는 상오 10시 모교 대운동장에서 동창의날 축제 개회식을가졌으며, 이날 3백여명의 동창및 가족이 모교정문에서 관악산 농대 수목원까지 등산을 한후 골프·테니스·바둑·등산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및 행운권 추첨으로 폐회했다.

敎育大院

동창회 名稱 바꾸기로
새 家族 영입위해

敎育大學院동창회(회장 李應鎬)는 지난 5일하오 3시 동창회관 느티홀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원을 迎入하는 방안으로 동창회 名稱을 바꾸기로 했다.

李應鎬회장을 비롯, 회원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의하고, 그러나 會名稱은 당분간 연구키로 했다.

敎育大學院 동창회는 지난 76년 교육대학원이 大學院에 통합된 이후 계속 회원영입을 해오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會則 일부를 개정, 副會長 6명을 10명으로 4명을 증원키로 했으며, 理事도 40명 내외로 늘리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또 지난 73년 창간되어 79년10월20일 3호 발간후 근 10여년동안 停刊상태에 있었던 「敎育大學院 동문회보」를 앞으로 연4회 발행키로 했다.

이어 영전회원에 대한 축하법위를 늘리기로 한 후 최근에 취임한 김상준서울시교육감, 신극범한국교원대 총장, 전동기오금고교장, 이형렬판악중교장, 최종진화곡여중교장에게 축하패를 증정했다.

在釜동문 作品展

KBS放送局서

釜山에 거주하고 있는 美大 출신 동문들이 작품을 모아 지난 10월18일부터 24일까지 同門展을 열었다.

KBS부산방송국 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동문전에는 50년도에 졸업한 선배에서부터 작년 졸업생까지 36명의 동문이 작품을 골고루 출품하였다.

현재 釜山에는 「在釜美대학 동창회」(회장 張相萬)가 구성되어 있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李孝益회장에 祝賀牌

명예經營學博士 학위 취득

經營大院

經營大學院동창회에서는 지난 11월14일 하오 7시 쉐라톤워커힐호텔 2층에서 李孝益회장의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취득 축하연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경축연은 梁承現 간사장의 사회로 李聖秀 본회상임부회장과 李회장의 경영대학원 은사인 吳相洛교수의 축사에 이어 李회장의 인사와 만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敎育大院

李회장은 악기 단일품목으로는 금년 10월末현재 1억불을 수출하는등 三益樂器製造㈜를 세계제1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지난 8월5일 美國 아주사퍼시픽大學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李회장은 이날 인사를 통해 『이렇게 훌륭한자리를 마련해주신 동문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후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영대학원 동문일동은 李회장에게박사학위 취득 축하패를증정했다.

成樂緖忠南支部長 별세

本회 忠南支部長인 成樂緖동문이 지난 24일오전6시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별세했다. (84세)

대학교수·제헌국회의원·충남도지사·충남대총장·유림의 총관장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故成동문은 1970년 충남지부가 창립된 이래 별세하기 직전까지 18년동안 支部長직을 맡아보면서 오늘의 모범지부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했다.

師大

일곱번째 登山대회 열려
圓通寺거쳐 誠信女大서 여흥

師大同窓會(회장朴智洙)는 지난 10월30일 동문 약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일곱번째를맞은 이날 등산대회는 작년과 같이 牛耳洞 버스종점인 그린파크正門앞을 출발 형형색색으로 얼룩진 圓通寺·牛耳庵을 지나서 誠信女大 생활관인 난향원에 여장을 풀었다.

집결지에 도착한 동문들은 잔디밭에 삼삼오오 둘러 앉아 점심을 들며 선후배간의 정담을 나누었고, 이후에는 노래자랑 경품추첨등으로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各科別 卒業年度別 性別에 따른특별상도 마련되어 더욱흥미를 끌었는데 내년에는 많이 참가한 分會및 期科에 대해 특별상을주었으면 하는 일부의 논의도 있었다.

師大

시카고

獎學基金 모금
올해目標萬7천弗

시카고지부에서는 후배들의 면학지원을 위한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현재 기금의 적립액은 2만여불이며 올해 목표액을 1만7천5백불로정하고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석환동문이 1천불을 기탁하는등 모금에 순조를 보이고있다.

시카고 지부에서는 장학기금의 용도를 일부는 모교에 장학기금으로 기증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美國에 있는 우수하고 자격있는 대학생들에게 본인및 부모들의 모교출신 여부에 관계없이 자질본위로 해마다 약간명을 선정하여 그들의학업을 잘려하는 뜻에서 지급하고 있다.

서울大學校의 뿌리 6

「國立서울大學校」의 創設 〈上〉

—韓 基 彦
〈母校 師範大學 교수〉

「國立서울大學校」가 創設된 것은 아시다시피 1946년 8월 22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학이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한 날은 그 해 9월 28일 오전 9시이다. 이 날은 실질적인 서울대학교 개교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또한 기념되어야 할 것이다. 이 영광되고 기념될 천강의 자는 누구인가 이제는 고인이 된 法大교수요 명예교수였던 晴軒 金曾漢(1920~1988) 박사이다.

그는 스스로도 이 천강의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의식하고, 내심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 역시 「국립서울대학교」의 창설을 말함에 있어 그가 행한 바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번째 강의의 역사적 의의를 유독 강조하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는 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친 바가 있다. 서울대학교 창립 18주년기념의 글 중 일절이다.

서울대학교의 역사는 盟休로 시작되었다. 1946년 8월 22일자로 國立서울大學校設置令이 公布되고 9월 부터 開講하게 되어 있었는데 소위 國大案反代運動때문에 개강이 약 1개월 늦어졌다.

내가 9월 28일 오전 9시부터 法大에서 正味 120분의 강의를 하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서울대학교에서 最初의 講義이었다. 그 후 1·2일 정도의 선후의 차이는 있었으나 9월말까지에는 각 대학이 모두 강의를 시작했다.(大學新聞 : 1964·10·12)

서울대학교의 개교일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최초의 강의가 있었던 1946년 9월 28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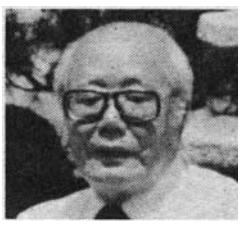
오랜 한국의 국립대학의 역사는 여기에 비로소 부활하게 되고 생생하게 學脈을 되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국립서울대학교」 창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당시 문교부차장이었던 天園 吳天錫박사(1901~1987)였다.

이 점에 관하여 「國大案研究」를 주제로 한 「서울대학교 敎育史學會」(회장 한기언) 제2차 하계세미나에서 崔光晩씨는 「국대안 관철과정에 관한 재고」(1988·8·10)라는 논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국대안은 최소한 1946년 6월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있었다. 국대안 직전에 발표된 두 차례의 고등교육에 관한 임시조치(서울신문 : 4·26, 6·8)에서조차, 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규정들은 들어 있었지만, 종합대학 설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대안은 이미 오천석이 구상하고 유억겸 문교부장과 락카드 대위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立案하고 있었다. 비밀리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의된 국대안은 1946년 4월 경의전과·경성대학의 학부의 통합문제 이후에야 비로소 공식화 되기 시작하였고, (서울신문 : 1946·5·1) 계속적인 화교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13(동아일보 : 7·17)과 8·22(조선일보 : 8·28, 군정법령 102호) 두 차례의 공식발표를 통해 강행되어 갔다.

그렇다면 이전의 교육심의회나 문교부의 고등교육위원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국대안이 그렇듯 전격적으로 발의된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여기에는 어떠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들은 국대안의 발의자인 오천석의 의도와 그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군정청의 의도를 구분하는 작업을 통하여 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진(上) 吳天錫박사
(下) 金曾漢 前法大교수

우선, 군정청의 의도는 정치적인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1946년 초반까지 군정청은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자체에 대해서 지식이나 관심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는데, 1946년 전반기 부터 대학의 정치문제에 개입하는 현상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군정청은 이때부터 어떤 형태로든 대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을 것이며, 국대안의 내용 중 이사회의 설치와 교수 재임용 등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설혹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국대안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당시 현안 문제였던 「신탁 통치」의 문제를 적어도 학원에서나마 희석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계산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군정청의 이와같은 정치적 의도에 비하여, 오천석은 보다 교육자적이고 행정가적인 의도를 가졌었다고 볼수 있다. 교육자적인 측면은 그가 국대안설립의 취지에서 언명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학건설」에서 그 단면을 볼수 있고, 행정가적인 측면은 당시 교육재정상황과, 앞에서도 언급한 「자치회」와의 갈등을 고려할때 이해될 수 있다. 즉 오천석으로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학이 하나쯤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대학을 만든다는가, 경성대학만을 대상으로 하여 종합하기에는 재정적인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립교육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이 그럴듯하게 보였을 것이다. 더우기 기존의 전문학교들은 식민지 시대에 건립된 것들이어서 식민지 유제를 청산한다는 명분 또한 가능하였고, 당시의 「자치회」에 대한 통제를 통해 대학교육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국대안 발의의 의도에 있어서 군정청과 오천석은 기존의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데에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지만, 그와같은 통제를 통해 얻으려 했던 내용은 서로 달랐다는 해석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라고 국립서울대학교 설치안 발의과정의 전개와 발의 의도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다.

젊은 교육사학도인 최광만씨도 지적하였듯이, 여기서 크게 지목해야 할 것은 국대안의 입안자요 행정적 추진자였던 吳天錫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단 하나의 대학만이라도 설립할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염원, 바로 이 염원이 마침내 오늘의 서울대학교가 있게 만든 것이다.

사실, 天園의 경우는 1930년대에 이미 우리나라 대표적 교육학자 중한 사람이었고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의 철학박사 학위취득자로서 듀이와 킬패트릭의 제자였던 만큼 그의 탁월한 교육학적 식견이 마침내 을유광복과 더불어 간절한 민족적 염원의 표현으로서 「國立서울大學校」 하나의 결정체를 이룩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天園은 만 86세의 天壽를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났으나 「단 하나의 대학이라도 진정 대학다운 대학을 가졌으면」이라는 간절한 민족적 염원을 살려 서울대학교의 창건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당시 미군정하인데 「國立서울大學校」란 무엇이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논문을 쓰고도 있으나 이것은 을유광복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天園이 미군정청 문교부 차장(후에 부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 장래를 삼망하면서 소신껏 처신했듯이 바로 독립국가라는 의식하에서 만사를 입안 추진하였던 것이지, 결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라야만 국립서울대학교 창설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을유광복과 더불어 내나라를 되찾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요,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게 되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관 하였던 것이다. 실로 「국립서울대학교」의 창설은 민족의 대학 세계적 대학 건설이 目標였던 것이다.

「國立서울大學校」는 창설과정에 있어서 이른바 「國大案波動」이라하여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당시 학생들 또한 좌우익으로 나뉘어 심각한 대치가 있었다. 그러나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유일한 국립대학교 창설에 즈음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심사 숙고한 결과는 각자가 자기 의지와 의사 결정으로 최초의 학생 등록에 임했던 것이다.

국립서울대학교로서의 최초의 학생 등록 행사는, 등록희망 학생과 이를 저지하려는 좌익학생 사이의 육탄적 대결 가운데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동숭동구 문리과 대학 정문 앞을막은 좌익학생, 그들이 겹겹이 쌓아놓은 사람의 벽을 뚫고, 등록 희망학생들은개별적으로 등록을 마쳤으니, 그로써 그들은 곧 「國立서울大學校 학생」이 된것이다. 이렇듯 최초의 학생등록은 학생들의 自由 의지의 시금석이 되기도 한것이다. 그만큼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최고학부에서의 수련에 걸어 보려는 학생들 각자의 용단과 학문적 정열 또한 드높았던 것이다.

「大學다운 大學」만들려는 民族的 염원의 結實

— 첫講義 있었던 9월28일 사실상 開校기념일

左翼학생들의 「國大案」波動으로 陣痛 겪기도

모임 探訪

商大1·7同期會

「동문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商大17同期會는 1959년도에 모교에 입학한 商大 17회 同期들의 모임이다.

入學定員 3백20명중 他界한 10명이 제외된 3백10명이 현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海外에 거주하고 있는 50여명의동문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모교 졸업후 言論, 金融, 官, 財界등 각 분야에서 젊음을불사르며 60~70년대의조국근대화 작업에 큰역할을 한 주역들이다.

同期會가 창립된 일자는 정확한 자료가없어 알수 없으나 초대 회장은 李容갑동문 (한비산업사장)이 맡아 초창기의 조직기반을 다지었고, 이어 2대 朴容大동문(대용상사사장), 3대 朴英珠동문 (이건산업사장)이 會를 이끌어 왔고, 4대째인 鄭熙永동문부터 基金 조성에 박차를 가해 財政的 기반구축에 힘썼다. 이후 陳稔동문 (해운한만청장)을 거쳐현재(6대)는 金恒德동문(유공사장)이 회장직을 맡고있다.

◇金恒德회장

同會는 회원이 거주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支部 성격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곳이 여의도, 강남, 뉴욕등지이다.

同會 간사를 맡고있는 朴昌珠동문 (한국장기신용은행이사)은 회원 유자녀를 돕기 위한 장학기금 모금은 역대 會長團에서 모두 열성을 기울인 결과현재 여타 同期會에선보기 드문 1억2천여만원을 적립해 놓고 있다. 同會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회원유자녀의 中·高·大學의 등록금을 지원해주고있다. 중학생에게는 2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 대학생에게는 70만원씩을 지원, 금년에는 23명에게 총 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同會는 앞으로 회원유자녀가 계속 늘어날것에 대비하고 또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학자금 전액지급)을 주기위해 장학기금을대폭 확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同會의 모임은 2회 전체 모임을 갖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시모임을 열고 있다.

전체 모임은 여름의 가족동반 野遊會와 망년회를 겸한 12월 총회로 오붓한 분위기속에서 새해설계를 꾸미고 있다. 한편 여름의 야유회는 보다많은 가족들이 참가할수 있도록 여름방학기를 이용하고 여러 있어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속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前現 회장단으로 運營委員會를구성, 부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동기회 운영에 대한 그때 그때의 현안을 토의 결정하고있다. 또 海外居住 동문이 귀국시 귀국환영회와 會員의 慶常事시 그리고 동문들의 출판기념회등을 통해서도 잦은 모임을 갖고 있다.

또 한편으론 「1·7 골프회」를 두어 골프를 통한 건강유지와친목을 도모하고 있는데 1백여명의 회원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

1·7同期會 회원들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官·財界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財政·言論·金融界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評이다.

이들 주요 面面들이 살펴보면 官界에는 朴清夫경제기획원기획관리실장, 李祥太경제기획원심사평가국장, 張錫靖 동자부자원정책실장 등이 있고, 財界에는 李炯坤삼성물산사장, 朴容晟동양맥주사장(본회부회장), 申熙徹금강제화사장, 文康民남영나이론사장, 孫吉丞선경그룹경영기획실장 등이 있다.

또 學界에는 모교의 宋丙洛, 朴在潤, 鄭秀一교수를 비롯, 건국대의 玄義泰교수, 홍익대의 尹鳳鎬교수, 충북대의 朴定樹교수등이 있고 言論界에는 서울경제신문의 朴炳潤편집국장, 조선일보의 崔青林주간조선국장, 동아일보의 閔丙文논설위원등이 있다.

이밖에도 동창회관 I층에 있는 李元敎조흥행도화동지점장을 비롯 각 은행에 지점장급으로 상당수가 활약하는 등 기라성급 人材들이 많으나 소개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라는 朴昌珠간사의 辯이다.

獸醫大40同期會

人間生活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衣食住문제이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그중에서도 특히 食의 비중이 커지고있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의 食生活도 이제는 「살기위해 먹는」 차원을 벗어나 食道樂을 즐기게끔 食文化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人間食生活의 발전을 위해연구하는 학문중의 하나가 獸醫學이다. 獸醫師는 특히 肉類의 사육에서부터 도살·가공·유통을 관장하는 전문가로서 이들의 손을거치지 않고는 육류품이 우리의 식탁에 오를수 없다. 그래서 수의사의 지위는 대개가 그나라의 환경, 즉 생활수준과 정비례 한다.

◇朴鍾榮前회장

이는 나라가 발전하면 할수록 육식위주의 식생활로 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畜産物 식품이 국민의식량으로 그 소비량이급증함에 따라 獸醫師의 임무가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獸醫大40同期會」—. 바로 이들이 우리나라의 식품위생에 큰몫을 담당하고 있는 모교 獸醫大 61년 입학 동기들의 모임이다. 40이란 숫자는 학번이 4001부터 시작됐기때문에 頭數를 따온 것이다.

「우리가 40동기회란이름 아래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것은 卒業후 軍에 다녀와서 생활의터전을 잡기 시작한 70년대 초로 여겨집니다. 이전에는 同期들의 慶弔事시 혹은 開院시가 까운 친구들끼리 모여 회식정도를 갖는 것이 전부였읍니다. 기록이없어 정확한 창립연월일은 알수 없고, 초대회장은 崔榮植동문(태양돌물병원장)이 맡아 흩어진 회원들의 소재파악등 조직관리에 많은 힘을 쏟았던 것으로기억됩니다」

2대 회장을 역임한 朴鍾榮동문(중앙케미칼 부사장)의 설명이다.

회장은 이어 郭慶鉉(서울가축병원장)·樂昌玉(다나축산대표)동문을 거쳐 5대인 현재의金仁泳동문(양지부화장대표)으로 이어지고 있다.

同會의 구성인원은 61년 입학당시에는 80명이었으나 이미 6명이 별세하여 현재 회원은 74명으로 되어 있다.

회원들의 사회활약상 또한 크게 두드러져모두가 각계의 요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학계및 연구소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博士학위 소지자들로서 金平吉동문이 全北大 農大 수의학과에, 朴榮洙동문이 한국교원대에, 尹永皓동문이 중앙대축산과에, 그리고 李興植동문이 모교 수의대에서 교수로 활약하고있다. 또 수의학박사인金成元동문과 朴鍾鳴동문은 서울대공원동물병원과 농촌진흥청가축위생연구소에 각각 재직하고 있으며 보건학박사인 盧炳宜동문은 美國 위생국에 근무하고 있다.

한편 사업을 하는동문으로는 宋基洪 다나가축약품사장, 梁昌玉다나축산기구대표, 崔重基우성교역사장, 金振球녹십자수의약품부사장, 朴鍾榮중앙케미칼부사장등이 있는데 특히 金振球동문과 朴鍾榮동문은 수의대를 대표한 본회 理事로 동창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규모 農場을 하는 동문으로는 金仁泳동문이 양지농장, 李秀昌동문이 가나목장, 鄭英敏동문이 청용목장, 李承茂동문이 수원대진목장, 白永準동문이 백운농장, 鄭泰輿동문이 신정목장을 경영하며 축산업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밖에 同會의 연락간사격인 李換本동문은 강남구 신사동에 태승빌딩을 비롯한 수백억대의 부동산 재벌로소문나 있으며 金啓邦동문도 대전에서 계방동물병원을 크게 운영하고 있다.

同會는 이와같은 회원들의 폭넓은 사회활약상을 토대로 年1회의 정기 모임과 외국동문이 귀국하면환영회를 겸한 수시임시총회를 개최하며 목을 두텁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85년 1월에는 졸업 20주년을 맞아 期대표로선 처음으로 獸醫大전교수를초청, 謝恩會를 베풀기도 했는데 최근에 와서그 활동이 소원했다며 앞으로 분발할 것을 다짐한다.

× × ×

食品衛生·畜産業 발전에 큰 몫
수시로 모임 가지며 親睦 도모

獎學基金 1억2천만원 적립
遺子女에 學費 年1천만원 지급

本報廣告問議
702-2233

올해에 펼친 主要사업

—各大學(院)同窓會 한해의 決算

해가 거듭될수록 同窓會의 활동상이 크게 변모해가고 있다。親睦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母校에 보답하려는 각계동문들의 意志가 크게 작용하면서 母校支援과 奬學金모금운동에 솔선 참여하고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15개單科大學과 7개大學院同窓會에서는 올해에도 크게 活性化되어 各級同期會에서까지 「母校찾기」와 施設物 機資材까지 헌납하기에 이르고 있으며, 각종 친목행사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基金확보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本紙에서는 年末을 결산하고 새해의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各同窓會別 사업실적과 현황을 알아본다。

家政大學

①主要行事
▲定期總會：1월21일 뉴월드호텔, ①예산 결산승인 ②신입회원 환영 ③입원개선。
▲스스의날 행사：5월14일 ①모교에 케익 및 꽃다발 증정 ③會長團이 모교 은사님 모시고 만찬。
▲幹事모임：격월로 6회 개최, 동창회기금마련위한 사업 추진 결의。
②奬學事業
▲모교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재학생 3명에게 2학기 등록금전액 지급。
▲在美동창회인 木蓮會에서 장학금 4백50달러 송금함。

工科大學

①主要行事
▲理事會：5월4일, 한국엔지니어클럽, 정기총회 부의안건 심의。
▲定期總會：5월15일, 공대 교수회의실 ①제7대 회장에 崔鍾旋동문 선출 ②87년도 결산및 88년도 사업계획 승인 ③정년퇴임한 김준용·이종각·이문득교수에게 기념품 증정 ④회칙일부 개정 ⑤총회후 수목원 등산대회。
▲제5차 산업시찰및 관광행사：7월11~14일, 동창회 회원및 모교교수로 구성, 삼성반도체통신~포항공대~한전울진원자력건설사업소~쌍용양회~경월주조~설악산등 시찰및 관광。
②母校支援
▲9월20일, 金商周학장에게 5백만원전달。
③刊行事業
▲工大史：4×6배판 7백54페이지, 공대의연원 설립과 발전 각학과사및 부속기관의 역사 기타 연표등 수록。
▲同窓會소식：4×6배판 32페이지, 연2회(4월 10월) 간행。
④其 他
▲각학과 최우수 졸업생 시상：2월24일, 공대 교수회의실, 19명에게 상장및 기념품수여。

農科大學

①主要行事
▲會長團회의：1월28일, 3월8일, 5월6일 3차례 개최。
▲理事會：3월9일, 농대 본관 소회의실, 87년도 결산, 88년도예산및 사업계획 토의。
▲定期總會：4월9일, 모교 대형강의동, 87년도 결산·88년도 사업및 예산승인。
▲同門長官·團長및國會議員 축하연：5월14일, 모교 일학관앞 잔디밭, 윤근환농수산부장관등 회원다수 참석。
▲理事會：10월18일, 대림정, 동창회 사업보고。
▲理事會：10월25일, 모교 교수회의실, 모교발전장기계획안 보고및 상록탑 건립등 토의。
▲理事會：11월16일, 대림정, 상록탑, 건립추진 준비。
②母校支援
▲팩시밀리(TC-7020) 1대 기증。
③刊行事業
▲同窓會報：4×6배판 46페이지 3회(10호, 11호, 12호) 발간。

文理科大學

①奬學事業
▲88학년도 育文會장학금 지급：3월16일, 모교 人文大 社會大 自然大 재학생 각 2명에게 등록금전액씩 총 2백78만 3천원。

美術大學

①主要行事
▲理事會：2월20일, 동창회관 느티홀, ①기금조성 ②동문회전 ③회보발간 ④정기총회 개최건등 논의。
▲新入會員환영회：2월26일, 모교 도서실, 신인회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동창회 사업등을 소개함으로써 동창회에 대한 관심도와 긴밀한 유대관계 증진。
▲定期總會겸 春季야유회：4월24일, 경기도 봉안, ①87년도 사업및 결산보고 ②88년도 사업계획및 예산보고 ③사진복행사。
②奬學事業
▲89년부터 지급할것을 목표로 현재 基金造成중임。
③刊行事業
▲89년에 발간할 회보와 주소록 제작준비。
④其 他
▲동문의 개인전및그룹전에 기념품으로 방명록 증정。

法科大學

①主要行事
▲新年人事會：1월13일, 프라자호텔。
▲駱山奬學會 정기理事會：2월12일, 롯데호텔 ①87년도 결산승인 ②88년도 사업계획및수지예산안 승인
▲駱山奬學會 임시理事會：5월16일, 코리아나호텔 ①기본재산 증자 ②임원개선 ③장학회운영세칙 개정。
▲定期總會：6월8일, 프라자호텔, ①87년도결산승인 ②88년도 사업계획및 수지예산 승인 ③임원선출 ④동창회 장학금 지급：2월23일, 53명에게 2천3백42만 6천원。
▲緣山奬學金 지급：선배 3명이 후배 재학생 5명과 연고맺어 총2백22만5천원 지급
③母校支援
▲피데스 제30호 발간, 학생동촌활동, 졸업여행, 모교 학술회의, 제15회 낙산제, 교수망년회등 보조금으로 3백30만원 지원。
④刊行事業
▲駱山會報：타블로이드판 12페이지 2회(3월, 7월) 발간。
▲法大百年史 자료집 제2집 자료 모집중。

期別모임 활발, 恩師 극진히 모셔
—「會長賞」新設, 參與의욕 돋구기도
會誌발행등 組織관리에 적극적

師範大學

①主要行事
▲定期總會：5월28일, 師大부여중강당, ①예결산 심의 ②88년도 事業計劃案 심의 ③任員개선。
▲제11회 장기·바둑대회：7월17일, 사대동창회관 50여同門 참가。
▲常任理事會：8월27일, 사대동창회관, 秋季동창회 행사 협의。
▲제6회 낙시대회：10월9일, 삼정레저타운 양어장, 30여同門참가。
▲제7회 登山대회：10월30일, 도봉산 牛耳岩, 60여同門 참가。
▲제11회 테니스대회：11월6일, 사대부고정구장 60여同門 참가。
▲市道지회장, 서울시分會長, 科동문회장 연석회의, 11월19~20일, 山井청소년극기훈련원, 40여同門 참석, 회원친목 유대및 동창회 활성화 방안 논의
②奬學事業
▲제1학기 장학금지급：3월10일, 각과 1명씩 총 15명에게 4백35만4천원。
▲제2학기 장학금지급：8월27일, 각과 1명씩 총15명에게 4백30만8천5백원。
③刊行事業
▲同窓會報：4×6배판, 8~16페이지 격월간 발행(82~85호)。
▲會員名簿：5월28일 직장및 자택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기록된 명부 개정 발행。

商科大學

①主要行事
▲최우수 졸업논문및 성적우수자 시상：2월24일, 6명에게 기념품 및 상패수여。
▲임시總會：6월8일, 세종문화회관, 입각및국회의원 당선 동문 환영。
▲運營委員會：7월7일, 프레스센타, ①동창회 기금조성및 운용에 관한 건 ②동창회 사무전산화에 관한 건 ③기타。
▲理事會：11월23일, 만강홍, ①예산·결산심의 ②동창회 기금 조성의 건 ③기타。
▲定期總會(예정)：12월8일, 힐튼호텔컨벤션센타 ①예산·결산심의 ②동창회운영 강화방안 토의。
②奬學事業
▲1학기 장학금 지급：2월24일, 11명에등록금 전액씩 총 4백86만2천원。
▲2학기 장학금 지급：8월17일 11명에게 등록금 전액씩 총 4백86만2천원。
③母校支援
▲教授硏究費：8월17일, 모교 경영연구소및 경제연구소에 각각 1백만원씩 지급。
▲學生活動費보조：수학·졸업여행, 기타 행사에 총 2백40만원지원。
④刊行事業
▲向上의 塔：4월11일, 제58호 발간。7월7일, 제59호 발간。12월8일, 제60호 발간。

獸醫科大學

①主要行事
▲모교 敎授 回甲宴：2월27일 韓壽南교수, 3월27일 朴應鎭교수, 4월2일 張斗煥교수에게 기념품 증정。
▲會長團회의：3월6일, 파레스호텔, ①모교퇴임교수및 回甲을 맞이하는 교수들을 위한 행사 ②동창회 운영에 관한 건등 논의。
▲모교 鄭昌國교수정년퇴임연：3월22일, 삼정호텔, 기념품 증정。
▲定期總會：12월중에 정。
②奬學事業
▲국내외 동문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目標額 달성에 적극 노력중임。
③其 他
▲在美동문과의 긴밀한 협력위해 美國지부 결성하고 8월18일 支部회장과 동창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가짐。
▲母校 移轉 사업및 교육연한 연장을 위하여 전동문이 협력하고 있음。

藥學大學

①主要行事
▲會長團회의：1월11일, 2월11일, 會期末결산및 총회준비 사항검토。
▲7회 常任理事會：2월20일, 전년도 會務報告및 결산승인·총회대비 의안등 심의。
▲定期總會：2월24일, 동창회관 ①會務보고 ②결산승인 ③임원개선 ④예산·사업계획등 심의。
▲會長團회의：3월14일, ①부회장및 임원위촉 ②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③會則 일부 개정안등 협의。
▲常任理事會：3월22일, ①會則일부 개정 ②任員선임 추인 ③國會議員 출마동문 지원대책 협의。
▲同窓會報 편집회의：5월19일(20호)
▲會長團및 任員회의：6월7일, 재정문제등 협의。
▲會長團및 任員회의：9월15일, 「同窓의날」 행사추진과 財政문제, 공동구매 사업추진등협의。
▲支部長회의：9월20일, 서울시 약사회분회장 선거건 논의。
▲바둑대회：10월15일, 한국기원(동창의 날 행사 일환)
▲테니스대회：10월16일, 서울대학교 테니스코트(동창의날 행사일환)
▲동창의날 행사 發山大會：10월30일, 농대수목원, 레크리에이션및 시상식。
▲會長團회의：11월30일, 送年會및 理事會개최, 藥師會 진출 동문 후원건등 논의。
②奬學事業
▲제1학기 장학금지급：2월24일, 10명에게 총 1백50만원。
▲제2학기 장학금지급：8월20일, 10명에게 총 1백50만원。
③母校支援
▲7월21일 藥學硏修院 건립을 위한 보조금 전달。

母校支援, 奬學사업 크게

▲8월20일 학생보조금 80만원 전달.
▲10월8일 활동지원비 1백만원 모교에 전달
▲11월7일 활동지원비 1백만원 모교에 전달.
④刊行事業
▲同窓會報 : 4×6배판 20페이지 3회(19호, 20호, 21호) 발간.

音樂大學

①主要行事
▲각 期別代表회의 : 1월26일, 동창회관느티홀, 新任員 소개, 주소록 발간, 각기별 주소 확인전등 논의.
▲任員회의 : 9월6일, 모교 학생회관, 음대학생휴게실 비품기증 및 88년 총회 준비건 논의.
②母校支援
▲9월20일 음대 학생휴게실에 비품약 3백만원 상당 기증.

醫科大學

①主要行事
▲新年交禮會 : 1월4일, 모교 교수회의실
▲定期總會 : 2월27일, 모교 교수회의실, 88會期년도 예·결산및 사업계획 승인.
▲慶祝同門축하회 : 3월17일, 신라호텔, 檀彝慈동문의 보사부장관취임 축하.
▲제1차 常任理事會 : 4월4일, 한남클럽, 同期會長회의 개최및학생간부와의 간담회 개최건 논의.
▲學生幹部와의 간담회 : 4월15일, 낙산가든, 선후배간의 유대강화및 결속다짐.
▲同期會長회의 : 5월3일, 서울클럽, 테니스대회개최및 동창회활성화방안 논의.
▲제2차 常任理事會 : 5월26일, 한남클럽, ①테니스대회 개최및在美동문 귀국환영회 개최 준비 ②동창회 理事 재선임및 會員名簿 제작에 대해 논의.
▲테니스대회 : 5월29일, 모교병원 테니스코트.
▲제3차 常任理事會 : 7월29일, 한남클럽, 支會長회의개최및 在美동문귀국환영회 개최 및 會員名簿제작건등 논의
▲支會長·同期會長회의 : 8월31일, 스위스그랜드호텔, 在美同門 귀국 환영회 개최건 논의.
▲제4차 常任理事會 : 9월7일 한남클럽, 在美同門 귀국 환영회 개최및 會員名簿 발간등 會務 전반에 대해 논의.
▲在美同門 귀국환영회 : 10월7일, 스위스그랜드호텔, 夫婦동반으로 2백여쌍 참석.
▲제5차 常任理事會 : 11월2일 한남클럽, 送年會및 理事會, 바둑대회, 정기총회 개최건 등 논의.
▲含春의 밤 : 12월2일, 하이야트호텔, 이사회및 送年會 겸해 경축동문 축하회를 치룸.
②刊行事業
▲同窓會소식 : 4×6배판 20페이지정도 隔月刊으로 6回 발행.
▲89년도 동창회 카렌다 제작 배포.
③其 他
▲記念品제작관매중

看護學科

①主要行事
▲신년賀禮式 : 1월4일, 한춘사.
▲전체理事會 : 1월18일, 수정궁, 정기총회건과 동창회 회칙 개정안 토의.
▲定期總會및 學術발표회 : 2월29일, 모교병원 A강당, ①회비 인상에 관한건 ②88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승인③박사학위 논문 발표및 학위 축하연
▲실행위원회 : 5월4일, 간호학과장실, 야유회및 동창회 주소록발간에 대한건 논의.
▲전체理事會 : 5월20일, 동창회사무실, 야유기별 참여로 여성·아동·남성의류및 일용잡화 판매.
②奬學事業
▲1학기 장학금 지급 : 모교 재하생 4명에게 등록금 전액씩.
▲2학기 장학금 지급 : 모교 재학생 5명에게 등록금 전액씩지급.
③母校支援
▲舍春축전, 체육대회, 간호학과보 출판등 학내외 활동 지원
④其 他
▲동문수첩 개정판발행(8월)

齒科大學

①主要行事
▲定期總會 : 5월27일, 프라자호텔, ①87년도결산승인 ②88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승인 ③元老동문에게 기념품 증정.

新入회원 歡迎宴열어

—夫婦동반 誘導하며 단합대회 열어

登山 낚시 바둑행사로 活性化 이룩

一體感조성

②奬學事業
▲1학기 장학금 지급 : 모교생 4명에게등록금 전액씩
▲2학기 장학금 지급 : 모교생 4명에게등록금 전액씩.
③母校支援
▲모교 교수 대학발전 하계 세미나 개최보조.
▲모교 교수를 위한종강 연회 개최.
▲재학생 상아축제보조.
▲모교 6·9제 행사 보조.
④刊行事業
▲동창회 달력 제작배포.
▲회원명부 제작 배포.

大學院

①奬學事業
▲89년 1학기부터 人文및 自然계열 석사과정 새학생 중에서 2명을 선발, 한학기에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 ②88년도 정기총회 의안 토의.
▲定期總會 : 6월25일, 삼익악기제조주식회사강당, ①삼익악기 견학② 예산·결산 승인 ③신입회원 환영회 ④永久회비 납부자에 상패증정.
▲幹事會 : 7월7일, 태농, ①동창회 운영및 활성화 방안 논의 ②회비납부 독려.
▲幹事會 : 9월8일, 태농, 任員會 개최준비및 동창회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任員회의 : 11월14일, 쉐라톤 워커힐호텔, 李孝益회장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 축하연 갖고 회원이름으로 축하패 증정.
②奬學事業
▲6월25일 정기총회시 大學院 경영학과자치회장에게 등록금 전액 지급.
③刊行事業
▲會員名簿 : 6월12일 발간, 전회원에 배포.
▲회원문고 설치를위한 저서 수집운동.
▲회원찾기
▲어문계열 동창명부 발행

保健大學院

①主要行事
▲新年賀禮式 : 1월1일, 모교에서 개최.
▲역대會長 초청 간담회및 理事會 : 9월7일,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안클럽, ①88년사업계획및 예산안 검토와 총회 개최건 ②동창회칙 재검토 ③모교 도서실 學術誌 기증건④모교 행사 지원및 동창회 발전방안 협의.
▲명예회장 장관취임축하회 : 2월24일, 동보성.
▲정부 각 부처 승진회원 축하회 : 3월18일, 가야성.
▲모교 신·구원장초대 모임 : 4월25일, 프레스센타.
▲定期總會 : 10월28일, 원자격에 대한 회칙일부 개정 ②신입회원환영 ③박사학위 취득동문 3명에게 기념패증정.

刊行事業
▲同窓會報 : 4×6배판, 격월로 6회 발행.
▲會員수첩 : 1백48페이지 1천부 발행 배부.

行政大學院

①主要行事
▲졸업생축하 : 2월26일, 모교 대강당.
▲실무任員회의 2월29일, 동창회 사무실, 行政과 政策論叢 발간배경및 계획안 협의.
▲理事會및 入閣동문축하회 : 5월20일, 롯데호텔, 정기총회 부의안건 심의.
▲定期總會 : 5월26일 세종문화회관 ①87년도 決算보고 ②88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 승인 ③常任理事및 理事보선 ④行政과 政策論叢및회원명부 발간건 협의.
▲理事會 : 7월18일, 롯데호텔, 榮轉동문축하.
▲行政과 政策論叢편집회의(2회) : 논총발간 구체안 협의및 원고 접수를 89년3월末까지 연기키로 함.
▲理事會 : 11월16일, 롯데호텔, ①任員부담금 및 회비결정 ②감사·상임이사·이사보선③회원명부 간행 ④동창회 기금중액건등 논의.
▲理事會 및 送年會(예정) : 12월6일, 세종문화회관.
②奬學事業
▲제1학기 장학금지급 : 2월23일, 장학생5명에게 총 2백37만원.
▲제2학기 장학금지급 : 8월8일, 장학생5명에게 총 2백21만원.
③母校支援
▲院友會(학생회) 행정과 정책연구 학술논문집 제2집 발간 지원.
▲행정대학원 소식지 제30호·제31호 발간지원.
④刊行事業
▲행정과 정책논총발간사업 추진.
▲89년도판 회원명부 제작 추진.

教育大學院

①主要行事
▲理事會(2회개최) : ①이사선임 ②고문추대 ③지부 설치안 ④예산안 결의 ⑤「회원문고」설치결의 ⑥「동문회보」편집장및 간사장 인준.
▲任員會(5회개최) : ①사무직원 임용및채용승인 ②은행 지로개정. 설 ③특별회비 분담④염전 축하 대상자 결
▲定期總會 : 11월5일, 동창회관 느티홀, ①임원보선 ②결산승인 ③『동문회보』연4회 간행 결정 ④회칙개정(6조4항, 12조2항)
②刊行事業
▲同門會報 : 제4호국판 8쪽 발행, 간행
▲교육계열 동창명부 간행
③其 他

經營大學院

①主要行事
▲任員회의 : 4월18일, 태농, 동창회 운영 활성화 도모, 동문찾기방안 논의.
▲幹事會 : 6월9일, 동창회 사무실, ①동창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②刊行事業
▲제1학기 장학금지급 : 2월23일, 장학생5명에게 총 2백37만원.
▲제2학기 장학금지급 : 8월8일, 장학생5명에게 총 2백21만원.
③母校支援
▲院友會(학생회) 행정과 정책연구 학술논문집 제2집 발간 지원.
▲행정대학원 소식지 제30호·제31호 발간지원.
④刊行事業
▲행정과 정책논총발간사업 추진.
▲89년도판 회원명부 제작 추진.

環境大學院

①主要行事
▲理事會 : 5월12일, 녹원, 정기총회 부의안건 심의.
▲定期總會 : 6월3일 건설회관 ①87년도 결산승인 ②88년도 예산심의·승인 ③임원개선
▲理事會(예정) : 12월6일 하오7시, 녹원 88년도 사업(행사)점검및 기타사항 협의.
②奬學事業
▲제1학기 장학금지급 : 장학생 4명에게총 90만원.
▲제2학기 장학금지급 : 장학생 4명에게80만원 지급.
③母校支援
▲모교학생 자치회간행물「환경연구」제8호 발간비용 보조.
④刊行事業
▲會員名簿 : 88년3월 발행.
▲同窓會報 : 제16호(5월), 제17호(11월) 발행.

新聞大學院

主要行事
▲理事會 : 3월30일, 회칙일부 개정에 관한건, 총회일자및 안건토의.
▲定期總會 : 4월29일, 쌍용빌딩 스카이라운지 ①회원구성및 자격과임모교 강당 ①사업및경과보고 ②88년도 세입·세출결산및 감사보고 ③89년도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안 통과④회칙개정(제18조) ⑤박사학위 취득동문 5명에게 축하패 전달 ⑥신임회원 환영연.
②母校支援
▲9월9일, 모교 도서실 학술지 구입비로 1천부지원.
③刊行事業
▲會員名簿 : 88년도회원명부 1천7백부 발간.

名譽教授칼럼

큰 아들 分家하던 날

李 春 根
〈前 母校齒大교수〉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부모를 모시고 삼형제 사형제가 한 처마 밑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것이 당연했고 또 그것이 큰 자랑거리이고 그 가문에 있어서도 소위 大家라고 칭하면서 많은 존경을 받아왔다. 어느때 부터인지 모르지만 서양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으레히 분리나라도 이제는 소위 핵가족 제도라고 하면서 어느 집에서나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있다. 나가서 살게끔하는 서양 사람들을 본따는지 또 서양사람들이 사는것이 이상적인 가족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근자에 와서 핵가족 제도화되면서 으레히 전세집이나 아파트를 마련하던가 또재정이 허락치 않는 집은 심지어 삭월세방까지 얻어서 분가를 시키는 것이 요사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족 제도의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자랄때에 우리 집만은 조부님을 모시고 삼형제가 한 집에서 살았다. 이십여명의 식구가 한집에서 살아서 조반이나 저녁때는 단독상 또는 맞상으로 이십여개나 준비하여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란 나는 그 당시에는 단촐하고 조용한 집안이 부럽기도 했었다. 그러나 공부하기 위해서 타향에 나와 기숙사나 하숙집에서 조용히 살다가 방학때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로 사람사는집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때는 음식을 하나 해먹어도 온집안 식구가 즐거워 했고 추석이나 한식때에 제사나 성묘 준비를 위해서떡 때에는 많은 음식을 할 때에는 온 집안이 큰 행사나 치르는 집 같이 아주 떠들썩하곤 했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나는 내가 워낙완고하고 봉건적이고 아주 뒤떨어진 사상을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자식이 결혼하면서 사는것처럼 분가해서 사는것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소위 핵가족 제도라고 하면서 어느 집에서나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있다. 나가서 살게끔하는 서양 사람들을 본따는지 또 서양사람들이 사는것이 이상적인 가족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근자에 와서 핵가족 제도화되면서 으레히 전세집이나 아파트를 마련하던가 또재정이 허락치 않는 집은 심지어 삭월세방까지 얻어서 분가를 시키는 것이 요사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족 제도의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金道昶(47년 法大卒·本會副會長·辯護士)‖11월1일 개인소장도서 3천5백권을 母校 도서관에 寄贈。

▲金昌圭(48년 工大卒·本會理事·大林産業㈜ 石油化學事業部副會長)‖최근 호남에틸렌㈜이 社名이 바뀜에 따라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부회장으로 직책이 바뀌었다。

▲金容浩(48년 工大卒·租稅金融日報편집고문)‖10월 15일 조세금융일보 창간과 더불어 편집고문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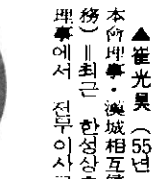
▲金完奎(48년 文理大卒·崇實大대학원장)‖10월 18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아基督敎大學協會회의에 총장대리로 참석한후 귀국。

▲金相廈(49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大韓商議會長)‖11월 10일 日本大阪에서 열린 韓日상공회의소회장회의에 참석코 귀국。

▲李元淳(49년 文理大卒·母校師大 교수)‖11월 5일 한국교회사연구소(명동 카톨릭회관)에서 후학들로부터 회갑기념논문집을 받았다。

▲鄭瑢載(50년 文理大卒·梨花女大師大學長)‖10월 29일 열린 韓國生物科學協會이사회에서 새회장에 선임되어 동협회 제43차 총회에서 취임식

▲白文基(50년 美大卒·재단법인 冠岳會감사·彫刻家)‖지난 9월7일 학예술원 강당에서 거행된 대한민국 예술원상 시상식에서 美術部門을 수상。



▲崔光昊(55년 商大卒·本會理事·溪城相互信用金庫專務)‖최근 한성상호신용금고 理事에서 전무이사로 昇進。

▲趙成鈺(56년 文理大卒·本會理事·유네스코韓國委員會事務總長)‖11월9일 열린 유네스코韓國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11대사무총장으로 유임되었다。

▲金哲洙(56년 法大卒·本報編輯委員·母校法大교수)‖韓國公法學會회장으로 11월18일오전10시 프라자호텔에서 「第6共和國 憲政의 方向 모색」의 主題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

▲柳大鎭(56년 商大卒·玉岡商事대표)‖최근 한국타올공업협동조합상임고문직을 사퇴, 욕감상사를 설립, 대표로 취임했다。11월1일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비상임감사직을 맡았다

▲金泓連(56년 音大卒·本會理事·아카데미앙상블 대표)‖9월20일 아카데미앙상블 제7회 정기공연을 호암아트홀에서 개최。

▲宋基德(57년 工大卒·本會理事·正一엔지니어링社長)‖최근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建築士大會에 부회장에 被選。

▲金永泰(57년 師大卒·本會理事·㈜S·T·M社長)‖10월 23일 英國 정보산업협력사절단의 일원으로 파견되어 유관업체를 돌아보고 귀국。

▲元昌淵(58년 工大卒·韓國

▲趙澈元(59년 師大卒·本會理事·相宇鐵機㈜專務)‖최근 광덕총합건설㈜전무에서 相宇鐵機㈜專務로 轉職。

▲金基永(59년 醫大卒·本會理事·第一病院원장)‖10월27일 부터 10일간 日本 奈良의 飛鳥寺초청으로 同寺 창건1천4백년 佛敎傳來 1천4백50년 기념식에 참석한뒤 불교계를 돌아보고 귀국。金동문은 말아 本會 禮山支部副會長職을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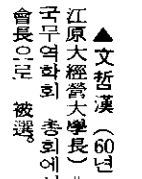
▲趙容復(60년 師大卒·서울大師大附屬女中校長)‖최근 경서중학교장에서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장으로 轉補。8월20일엔 고려대에서 理學박사학위 취득。

▲安承喆(60년 商大卒·本會理事·中小企業銀行長)‖11월10일 中國工商銀行의 초청을 받아 국내 10개금융기관시찰단 단장으로 열흘간의 중국방문을 마치고 귀국。

▲金濟鎭(60년 商大卒·서울信託銀行湖南地區 業務推進本部長)‖최근 서울신탁은행특수영업부장에서 호남지구 업무추진본부장으로 전임되었다。주소 광주직할시 동구금남로5가133。

動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변동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읍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 (702) 2233~5, (717) 8536~7



▲南正鉉(61년 工大卒·本會

▲李福男(63년 農大卒·農村振興廳研究官)‖최근 일본 東京에서 열린 아세아생산성기구 주최 소채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심포지움에 한국측대표로 참석, 동심포지움 진행의 의장직을 맡아 개최하고 귀국。

▲朴信之(64년 工大卒·本會理事·鮮京인더스트리㈜油化事業本部長)‖최근 商號변경으로 鮮京合纖㈜企劃調査室長에서 鮮京인더스트리㈜ 유화사업본부장으로 전임되었다。

▲金溢斗(64년 工大卒·㈜코오롱常務)‖11월 1일자로 ㈜코오롱상무 겸임 구미공장장으로 부임。전화(0546) 461-2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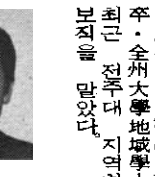
▲鄭實人(64년 文理大卒·漢陽大교수)‖최근 한양대 부설 중소기업연구소 초대소장에 취임하면서 자유중국 杜乃濟박사를 초청 「개방경제하에서의 중소기업 대응전략」이란 제하의 창립기념학술대회를 개최。

▲南喆鉉(64년 保健大學院卒·大邱漢醫科大學副學長)‖11월20일 대구한의과대학보

▲曺相鎬(67년 行政大學院卒·本會理事·體育部長官)‖11월 14일 헝가리를 방문한뒤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회 세계체육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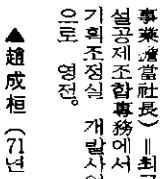
▲韓一相(68년 文理大卒·㈜鮮京에너지化學事業部長)‖10월1일자로 ㈜선경화학수출부장에서 ㈜선경에너지화학사업부장으로 轉職。

▲金文煥(69년 法大卒·國民大學교수)‖최근 국민대학 출판부에서 「美國法硏究」를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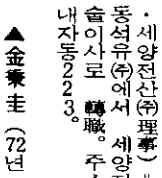


▲金春植(69년 商大卒·本會理事·啓靈社社長)‖11월 11일 서울강남구역삼동727에 新社屋을 마련, 계몽문화센터를 개관。

▲金成徹(70년 行政大學院卒·全州大學地域學大學長)‖최근 전주대 지역학대학장의 보직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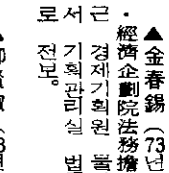
▲金利煥(70년 環境大學院卒·本會理事·력키금성企調室開發事業擔當社長)‖최근 전문건설공제조합專務에서 력키금성 기획조정실 개발사업담당사장으로 영전。



▲趙成桓(71년 農大卒·慶尙大學교수)‖최근 경상대학교 식품공학과 학과장의 보직을 맡았다。

▲金誠斗(72년 文理大卒·세양전산㈜理事)‖최근 극동석유㈜에서 세양전산㈜ 기술이사로 轉職。주소 종로구 내자동223。

▲金秉圭(72년 行政大學院卒·水原地方兵務廳長)‖최근 병무청 징모국장에서 수원지방 병무청장으로 轉任。



▲金春錫(73년 文理大卒·經濟企劃院法務擔當官)‖최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으로 전보。

▲柳賢淑(73년 看護學科卒·前永登浦市立病院看護科長)‖최근 영등포시립병원 간호과장직을 사퇴, 89년3월 개대중공업㈜해양사업본부를 퇴사, 한성살베지㈜ 기술담당이사로 영전。

▲吳二煥(77년 人文大卒·慶尙大교수)‖10월8일부터 11일까지 日本 東京의 大正大學에서 열린 日本中國學會 제40회대회에 참석코 귀국。

▲金殷玉(79년 家政大卒·大田大學교수)‖최근 대전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함에 따라 가정학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발령되었다。

▲高明澤(79년 工大卒·大林産業㈜)‖최근 직장부서 이동에 따라 대림산업㈜ 개발사업부로 전보되었다。

▲李炳建(79년 工大卒·력키中央硏究所)‖미국 라이스 유니버시티에서 학위를마치고 LBC에서 근무하다 최근 충남대덕에 있는 력키중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전화(042) 861-9981。

▲金昊東(81년 工大卒·東洋工專교수)‖최근 同校의 89학년도 공장자동화科가 신설됨에 따라 전기과에서 공장자동화과로 전보되었다。

▲柳時和(82년 農大卒·력키금성商社㈜ 水産課長)‖최근 력키금성상사 농산과장에서 수산과장으로 전보。

▲盧允書(84년 工大卒·三星航空宇宙硏究所)‖최근 삼성항공연구소 설립준비팀에서 항공우주연구소 연구1팀으로 전보되었다。

▲康承模(85년 商大卒·經濟企劃院)‖최근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에서 종합기획과로 전보되었다。

掲示板

結婚

同窓會館 冠岳홀

▲변종은(85년 工大卒·三星電子㈜)군·김영선양‖12월 3일 午後2時。

▲김관기(法大在學中)군·박찬희(85년 法大卒)양‖12월

▲趙應圭(85년 商大卒·韓國外換銀行龜尾支店)‖최근 除隊와 함께 軍將校출신 중견행원으로 외환은행 구미지점에 勤務中。

敎授 諮問 全文

敎授諮問 全文

同門을 찾아서

"自律性 提高위한 行政 펼칠터" 30여년 교육에 몸바친 實力派

▶ 李 [illegible] (56) 文理大 ▶ 朴 [illegible] (59) 文理大 ▶ 朴 [illegible] (59) 文理大 ▶ 朴 [illegible] (62) 工大 ▶ 金 [illegible] (62) 工大 ▶ 金 [illegible] (66) 工大 ▶ 李 [illegible] (74) 工大 ▶ 金 [illegible] (66) 工大 ▶ 金 [illegible] (66) 工大 ▶ 金 [illegible] (71) 工大 ▶ 朴 [illegible] (74) 工大 ▶ 李 [illegible] (65) 工大 ▶ 李 [illegible] (74) 工大 ▶ 李 [illegible] (65) 工大 ▶ 李 [illegible] (65) 工大 ▶ 李 [illegible] (65

糖尿病 위험신호

健康교실 ⑳

洪 文 和
〈37년 藥大卒〉
母校명예교수

(1)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흔히 『학문에는 正道가 없다』는 말이 있다. 누구나 노력을 하여야지 특별히 쉽게 되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요새 사람들은 왜 그리도 조급한지, 무엇이든지 당장에 해결되기를 원한다. 무슨 신기한 特效藥이 있어서, 그것만 먹으면 10년묵은 병도 하루 아침에 낫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이 있을수 없다. 病이 생기는데 시간이 걸린만큼 고치는데도 꼰

(2)

원래는 식사를 하면 그 속에 들어 있는 糖質을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을만큼 인슐린이 나오는 홀몬을 스스로 체내에서 만들어 낼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인슐린을 만들어 내지 못해서 혈액속의 포도당을 소변

(3)

무슨 병이건 조기발견을 하여서 손을 써야지, 위와 같은 위험신호가 있을때 미리 조치하라는 위험신호가 있다.

①왜 그런지 요새는 효약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말짱하게 고치는 방법이란 없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당뇨병이란 병이라고 생각할것이 아니라, 당뇨가 나오는 하나의 症狀 또는 신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논자도 있다. 어떻게 하면 평생 당뇨병이 한 번 걸지 않을것인가 없이 살수 있을것인가 이 마시게 되며 소변도 잦고 많아진다. 전에는 밤에 소변을 보지 않았는데 요새는 그때문에 한 두번 깨게 된다.

②몸이 무겁고 피로하기 쉽다.

③괘시장끼를 먹는데도 나 시장끼를 느낀다. 언제이 마르면서 체중이 몸소 감소된다.

④많이 먹는데도 마르면서 체중이 감소된다.

⑤나이탓을 하기에는 좀 이른것 같은데 性慾이 감퇴되면서 임포기운이 있어서 근심이 된다.

⑥여성이면 월경이 순조롭지 못하면서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폐경이 된다.

⑦몸이 근지러우며 특히 아래의 점찰치 못한 장소에 소양증이 있다.

⑧치아가 나빠져서 치조농루증으로 이가 흔들리게 된다.

⑨시력장애가 생겨서 잔 글씨를 보려면 초점이 흐려진다.

⑩손발이 저리고 신경통이 생긴다.

(3)

견을 하여서 손을 써야지, 위와 같은 위험신호가 생겼는데도 일단멈춤을 하지 않고 돌진을 하다가는 「病人膏肓」이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당뇨병의 진단은 소변검사만으로는 되지않으며 血糖檢査를 받아야 하며, 그것도 糖負荷試驗이니 혈중 인슐린활성검사등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을 턱 놓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 약을 써야만 되는 당뇨병을 의존성당뇨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까지 되기전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고치는 단계를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한다.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병도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할 수 있다. 식욕과 酒色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러면서 마음을 어떻게 누그럽게 갖게 하면 오메가인 당뇨병관리의 알파요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과 극복없이, 특효약을 찾는 안이한 생각은 도대체가 잘못이다.

越味生活

室內園藝

金 基 善
〈母校 農大 園芸科 교수〉

③

1. 灌水

가장 힘든 작업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주는 것이다. 실내에서 아무리 생산농가에서 잘 길러졌고 아름답고 또한 기능적으로 훌륭하여 실내에 갖다 놓았을때 주위와 잘 어울릴지라도, 결국 관리하는 사람의 열성과 손에 따라서 그 장점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름다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관리자가 각 식물들이 그 현상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있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내식물의 경우는 보기에 싱싱하고 아름다우나 천천히 자라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있다. 관리에있어서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는 늘 가까이 대하다 보니 소홀보다는 지나친 관주나 시비에 의한 문제점들이다.

2. 光線조절

실내에서 키우도록권장되어 市販되는 종류의 식물들은 대부분耐陰性이 강한 것들로서 사람들이 사무보기에 편한 정도의 밝은 광도밑에서 8~10시간 이상 빛을 받게 되면 생육에 전혀 위축이 없다. 하지만 빛이 약한 방안구석이나 그늘등에서는 빛이 약해서 잎이 시들시들해지다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되도록 창가 가까이 놓아 광도를 높은 광도로 해주는 것이 비교적 밝게 해주는 것이다. 분득이 다른 이유로 어두운 곳에 놔두고 즐기고자 하는 경우는 하루중 2~3시간동안이라도 비교적밝은 곳에 갖다놓아 모자라는 빛을 간헐적으로 보충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가에 화분을 놓고 키울 경우 해주어 버릇하는 것이 식물의 올바른 생장을 위해서 더욱 바람직하다. 즉 식물의 잎이 약간 마른 후에 물을 주어도 늦지 않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1주일이상을 멀리 여행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따금씩 식물의상태를 살펴보아 잎이 시들기 시작한 후에 물을 주어도 늦지는 않다. 하지만 식물이 싱싱한 상태인데도 습관적으로 물을 주는 것은 결국 뿌리를 썩게하거나 토양속 산소의 부족으로 뿌리의 생육을 위축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地上部도 자연히 수분부족현상을일으키게 된다. 지나친관수는 또한 토양속 영양분의 유실을 초래시켜 가끔씩 관수를 해줌이 가장 바로 이 작업이다.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주어서 늘뿌리가 과습상태에 있게 하루나 이틀동안 가물게 놔두었을 경우가 더 낫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느정도 말라는 것이 좋다. 햇볕 받는다는 것은 직사광선에 의한 일소현상(잎덴)이 발생하여 잎이 누렇게 타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창문에 가는 망사같은 것으로 커튼을설치하여 이러한 직사광선은 피해야 한다. 인조전등으로 補光을 실시할 경우라면 40W의 형광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백열등보다 효과적이는 전기비도적게 들지만 특히 식물

지속적 관심만이 아름다움을 表出

病虫害엔 殺虫劑보다 알콜로 닦아내야

3. 施肥

실내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노지에서 자라는 것에 비하여 생육에 필요한 고른 파장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W의 형광등도 화분위 약 30㎝ 정도 가까이에 위치시킴으로써 큰 효과를기대할 수 있다.

4. 病虫害防除

실내식물들은 주로 잎이 넓고 특히 감상하게 되고, 우가 많으므로 대할 경우 가끔씩 물분은 천이나스 잎을 물분은 닦아주어윤 폰지등으로 기가 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아름다움을주 목적으로 하는만큼 보기흉한 잎이나 꽃들은 즉시 손으로 제거시키는 것이 좋다.

이상 기술한 것들은 일반적인 관리사항들로서, 각각의 식물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의 관찰과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를 둔 지혜에 의해서 약간씩 관리요령이 달라지게 되는데, 역시 각 관리자의 관심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진딧물, 깍지벌레, 응애, 화이트플라이 등이 흔히 발생하는데,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솔이나 가재등에 알콜이나 비눗물 등으로 뜨슨한 잎이나 줄기에 묻어있는 벌레들을 닦아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병으로는 흑반병, 흰가루병, 흰곰팡이병, 탄저병 등이 있는데 통풍을 잘 시켜주고 과비상태를 조장시키지 않는다면 예방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생긴 다음에는 이것이 센이나 화제로써 방제가 가능하다.

5. 其他

新刊 안내

※이 欄은 同門들께 서 펴낸 新刊서적을 紹介해드리기 위해 마련했읍니다。새로 저술한 著書를 本報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韓國의 産業發展과 重化學工業化政策

—金 光 模 著

56년 工大化工科출신의 實業人으로 한국중화학공업정책발상의 동기와 배경및 효과에 대해 자료 중심으로 엮어진 著書。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전의 경제에서부터 1·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중화학공업화 정책기간、80년대 전후반의 경제등 한국의 공업발전을 개관하면서 공업발화 전개와 발전단계、대외협력및 무역정책、중화학공업화정책및 그 구체적 내용、중화학공업투자분석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산업발전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중화학공업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이만들어지기까지의 경과、마스터플랜、철강、비철금속、조선、기계、전자석유화학、방위산업 등 업종별 기본계획및 실적평가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著者는 중화학공업정책이 과거에 「過剩投資」로 혹독한 비난을 받았으나 현재의 한국경제가 70년대에 이룩한 중화학공업에 기반을두고 있는만큼 중화학공업정책의 의의와 기여도가 재평가되어야 마땅하다는 시각이 두드러지게 엿보이고 있다。

〈地球文化社刊·값6천원〉

□宋 詩

—李 炳 漢 著

56년 文理大中文科卒。母校人文大교수로 10년에 걸쳐 宋詩選을 기획、唐詩를 선호해온 사람들을 위해 宋詩와 해설을 곁들여 묶은 宋詩選이다。

唐詩와 宋詩의 우열 또는 특징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의론이 분분하였고 사람에 따라 偏好함이 서로 달랐다。객관적인 입장에서 따질때 宋詩는 詩作技巧의 진보、내용의 심화、詩材의 확대라는 점에서 唐詩보다 우위에 놓는 시각에서 宋詩나름대로의 風格높은 작품을 선정하고 있다。

이들 작품들은 천지만물、世態人情、학문예술、생활주변의 微物瑣事를 다루어 詩세계가 원숙하고 넓고 친근감을 주고 있다。그리고 唐詩에서 흔히 다루고있는 남녀의 애정에 관한 내용이 훨씬 적다。이는 唐宋 이후로 출현한 詞가 사람의 정감을 자유롭게 담기에 편리하여 宋人들은 그들의 哀歌을 대부분 詞로써 읊었기 때문인것으로 著者는 보고있다。

이 著書에서는 宋代에 걸쳐 생존하였던 詩人 52명의 작품 가운데 일반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나름대로 成就度가 높은 詩만을골라 對譯하고 詩人別로 略傳과 註釋을 붙여 生卒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있다。특히 작품에 따라 주석의 말미에 감상요령을 附記한 것이 특징이다。〈探求堂刊·값2천원〉

□통일을 위한 동·서독관계의 조명

—徐 丙 喆 著

63년 文理大卒。外交安保硏究院교수로 최근 통일에 대한 국민적염원이 높아가는것과 때맞춰 「7·7선언」등 그 실현을 위한 정책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갈혼 분단국가로서 보다 슬기롭게 분단을 극복、통일을 위한 단계적인조치를 취해온 독일의경험을 분석한 著書。

離散家族이 서로 방문하고 전화나 편지로 소식을 전할수 있는데 경제협력과 문화교류가 놀랄정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 東西獨관계인 만큼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다방면에서 살펴 우리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著者는 주장하고 있다。

지난 67년부터 81년까지 西獨에 체재하며 독일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는 著者는 정부의 「7·7선언」도 사실은 독일이 실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著書에서는 2차대전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체제로 양분된 적대적인 관계의 동서독이 어떤 과정을 밟으며、오늘과 같이 공존의 기틀을 다져왔는지를 분석、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절근 방식에 많은 시사를 주고있다。

〈知識産業社刊·값3천5백원〉

□韓國의 經濟勞使關係

—愼 侑 根 著

64년 商大卒。母校經營大교수로 변화선상에 놓여있는 한국 勞使관계의 구체적현실을 보여주고 당사자들에게국가 또는 전체수준의 産業관계적 측면뿐 아니라 개별기업수준에서의 經營勞使관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쓰여진 硏究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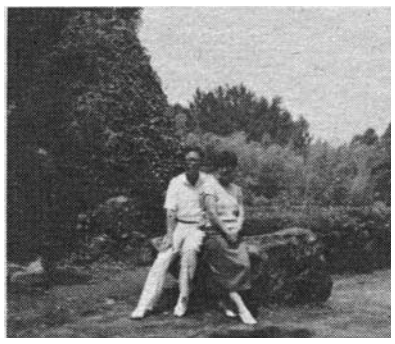
著者는 이책에서 전국적 현장실사를 통해 勞使관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있다。즉 勞使양측이 名分을 앞세우면서 和와 슴理性을 중시한다는 공통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著書에서 부각되고 있는 勞使間의 차이점은 사용자측이 권위적이고 근로자들을 경제인으로만 보는 반면 근로자들은 집단주의적 속성을 보이면서 자신들을 경제적 요인으로서 뿐만아니라 인격적대우를 받는 사회인으로 보고있다는 것이다。

著者는 이러한 특성들이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과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의 노사관리 및 제도등의 정비와 아울러 노사 양측의 의식전환및 적극적인 자세변화를 한국노사관계의 당면과제로 보고있다。

家庭閑談

하나와 둘의 사이

내가 국민학교 시절、어른들은 종종 장난삼아 시집은 언제갈꺼냐고 묻곤 했다。그럴때마다 펄쩍 뛰면서 시집 안간다는 독신선언을 했었는데、이 선언은 중학교、고등학교、대학시절까지 유효했으며 주위로부터도 노처녀 내지 독신여성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았다。



李南淑 女史

申英浩(藥大卒)동문 夫人

이렇게 자립의 길을 모색하던중、대학원 진학을 삼담하러간 어떤 남자에게서 우리 집으로 오라는 프로포즈를 받고 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혹시 저희가 저 넘어지면 하나가 저희가 그동안 한사람보다 두사람이 무를 붙들어 일으키리라」 결국은 성경말씀에 따르기로 하고 웨딩마치를 올린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한남자와 그남자가 포함된 가족과 사회에속하며 애 돌봐고 키우다보니 독신을 주장하며 나자신이 되고자 애썼던 내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누구의 부인、누구의 엄마라는 호칭이 있을뿐 내이름이 없다。아내로서의 일、엄마로서의일만 있을뿐 나자신을 위한 일은 없다。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아내의 지위이며자녀의 학교성적이 엄마의 학교성적으로 평가되어지는 사회이다。그러나 이사회가 남녀평등의 민주사회로 가기 위해선 여성들 스스로 자립하여 혼자 설 수 있어야만 한다。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은 어렵다치더라도 감정적인 독립은 가능하다。

자기자신의 생각이나 의견도 없이 무조건 남에게 의지하는 극장의 우상을 버리고 주체적 태도를 가져야할 것이다。

가정의 여성들이 자기자신의 발전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할때 우리의 사회는 바람직한 미래로 다가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자율선언을 통하여 우리 가정은 서로 이해하는화목한 가정을 이룰것이며 두사람이 한사람보다 나은 진정한 협력자가 될 것을 믿는다。

□한국민족문학론 연구

—權 寧 珉 著

71년 文理大卒。文學評論家로서 著述活動이 왕성한 母校人文大교수가 韓國現代文學史에서 지속적관심사가 되어온 民族文學論을 중심으로 문학과 민족문제의 상관관계를 精神史的 차원에서 고찰한 논문을 묶은 著書。

내용을 보면 제1부에는 구한말 애국계몽운동을 필두로 이루어진 민족문학에 대한 인식과정이、제2부와 3부에는 식민지시대 민족문학론의 성격을 분석 비판한 논문을 싣고 있는데 日帝强占下에서이루어진 민족문학론의현대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4부에서는解放空間의 민족문학론을 검토하고 있으며、5부에서는 分斷시대의 민족문학의 방향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著者는 민족문학의 궁극적 목표가 세계적 보편성 획득에 있는 것이라면 민족문학론은 새로운 문학양식 創出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展望함으로써 스스로 論理의 主體化에 접근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民音社刊·값7천5백원〉

여러분이 내주신 會費에 의해 同窓會는 발전하고 있읍니다

年會費 내주신분

(理事 : 10월27일~11월17일까지
會員 : 10월26일~11월17일까지)

※ 人名밑의 괄호안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度임.

會長團

▲監事 李炯善 30만원

常任理事

▲美術大學 金瑞鳳 10만원
▲家政大學 洪性也 10만원

理事

◇家政大學
▲崔聖淑(61) 서울시교위장학사 주부
▲李英子

◇工科大學
▲慶世燾(57) ㈜쌍방울대표이사
▲金世根(54) 서울기계공고교장
▲金完洙(47) 대한통운여행사사장
▲金溢斗(64) ㈜코오롱이사
▲朴信之(64) 선경합섬㈜기획조사실상무
▲李允宰(51) 세일교역㈜사장
▲丁明植(65) 포항종합제철㈜사장
▲崔聖培(59) 대우엔지니어링㈜상무
▲崔永祥(69) 한국전력공사부장
▲柳仁永 대한전선㈜사장
▲朴義植(63) 현대건설㈜전무

◇農科大學
▲兪東濬(60) 한국단미사료협회전무
▲柳漢雄(62) ㈜동방사료전무

◇文理科大學
▲金龍昨(59) 용만인터내셔날사장
▲金鎭炫(68) 동아일보논설실장
▲金洪喆(57) 한양대사청각교육원장
▲羅炳旭(49) 경북대문리대교수
▲朴錫興(67) 경향신문논설위원
▲安敎德(68) 전국회의원
▲李敏燮(65) 국회의원
▲李崇寧(56) 백제문화개발연구원장
▲李龍兌(57) 한국데이타통신회장
▲全相運(56) 성신여대총장
▲趙炳夏(52) 과학기술원교수
▲河永七(58) 서울대자연대교수
▲金榮國(54) 서울대대학원장

◇美術大學
▲權純亨(55) 서울대미대교수

◇商科大學
▲金東漢(56) 신용건설산업사장
▲朴容鑾(55) 전일성산업부사장
▲朴義祥(65) 태건실업㈜사장
▲李龍鎬(57) ㈜협진양행회장
▲姜旭求 ㈜성유상사대표
▲尹宗敏(46) 한국일보 논설고문
▲李炯坤(65) 삼성물산㈜사장
▲張世元(63) 동양폴리에스터㈜전무
▲全泳周(56) 한국외환은행계동지점장
▲鄭福榮(60) 한성기업㈜대표
▲鄭星補(57) 흥국생명보험㈜사장
▲洪性叔(53) 강원은행장
▲金天浩(50) ㈜신도리코전무
▲盧聖憲(43) 선경합섬㈜감사
▲卞重錫(64) 산업은행자금조사부장
▲李洙彬(61) 동방생명보험㈜사장
▲趙太濬(60) 전무림통상㈜사장

◇法科大學
▲宋榮邦(60) 동국대사대교수
▲李容煥(54) 건국대미대교수
▲黃賢秀(78) 제3갤러리대표
▲卞圭七(62) ㈜엘지에드사장
▲尙世煥(55) 신탁은행연주원교수
▲柳惠年(59) ㈜웨스콘사장
▲尹永哲(61) 대법관
▲李 協(71) 국회의원
▲李丙昱(57) 삼양유지사료㈜사장
▲李海元(53) 전보사부장관

◇獸醫科大學
▲李載哲(56) 덕산가축병원

□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 入金되고 있읍니다. 奬學사업을 비롯한 母校돕기에 많은 財源이 소요되고 있는 同窓會에서는 가급적이면 各會員들께서 앞당겨 會費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母校 발전과 동창회의 活性化에 도움을 주시는 뜻으로 여기시고 되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 會費내역 —

- 一般會費 …… 1만원
- 理事會費 …… 5만원
- 常任理事 …… 10만원
  (회원 3천명 이상) …… 20만원
- 監 事 …… 30만원
- 副 會 長 …… 50만원
- 會 長 …… 1백만원

◇師範大學
▲趙東元(68) 한국경제신문전무
▲金哲洙(56) 서울대법대교수
▲鮮于宗源(41) 변호사

▲裵兌中(55) 서대문중학교장
▲郭漢哲(54) 서울고등학교장
▲金城鎭(57) 성신여대교수
▲金容奭(58) 서울사대부중교장
▲朴大圭(57) 세림상사회장
▲林漢洙(60) 성신여대사회대학장
▲林香淳(64) 인천북부세무서장
▲趙炳奉(43) 시인
▲趙義淑(50) 숭전대교수
▲趙澈元(59) 광덕종합건설전무
▲崔仙吉(64) 중구청부청장
▲李應百(49) 전서울대사대교수
▲韓都淵(53) 산정청소년극기훈련원장
▲田贊和(54) 이대교수
▲康宇哲(49) 이대사대교수
▲李元求(52) 공주사대교수
▲李澤俊(52) 중앙대문리대교수
▲申讚雨(52) 숙명여대교수

◇藥學大學
▲金在百(56) 원광대약대교수
▲宋鍾善(54) 일양약품공업부사장
▲李奎鎬(65) 해동약국
▲金玉東(58) 반도제약전무
▲韓惠煥(50) 한성약국

◇音樂大學
▲權基準(53) 한양대음대학장
▲李誠載(51) 서울대음대교수

◇醫科大學
▲閔永玉(38) 고려병원장
▲申洪秀(49) 고려대혜화병원
▲池三峰(81) 대혜의원장
▲金英均(49) 서울의대비뇨기과교수
▲沈英輔(61) 심영보훈자선의원

◇齒科大學
▲金鴻基(76) 김홍기치과의원장
▲南東錫(65) 서울대치대교수

▲梁厚烈(60) 양후열치과의원장
▲尹興烈(65) 삼아치과의원장
▲李煒基(56) 동남치과의원장
▲李珍珪(57) 이진규치과의원장

◇經營大學院
▲馬奎河(60) ㈜기아기공사장
▲鄭日采(69)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장

◇行政大學院
▲金聖奎(72) 한국체육회협력부장
▲呂尙基(72) 미아전신전화국장
▲鄭相千(64) 변호사
▲崔雲芝(64) 국회의원

◇環境大學院
▲金利煥(70) 전문건설공제조합

◇司法大學院
▲郭倉旭(62) 변호사
▲金永斌(64) 변호사
▲徐建翊(65) 변호사
▲辛基夏(70) 국회의원
▲李致浩(70) 국회의원

一般會員

◇人文大學
▲강은봉(83)
▲김병존(83)
▲김순근(86)
▲김일영(85)
▲나상억(85)
▲민동홍(81)
▲박재익(78)
▲변원일(76)
▲소효영(83)
▲염승섭(61)
▲유찬균
▲윤홍철(81)
▲이은경(86)
▲이호상(86)
▲전영운(64)
▲정희보(78)
▲진경년(80)
▲진상옥(77)
▲한대명
▲유정열
▲김규정(81)
▲김봉택(57)
▲김영진(83)
▲김창환(74)
▲노응근(83)
▲박무호(80)
▲박종덕(78)
▲석 명(85)
▲안창원(83)
▲오이환(77)
▲윤승용(85)
▲이광희(83)
▲이주영(66)
▲전명수(82)
▲정영란(77)
▲조찬구(86)
▲진기웅(78)
▲홍종선(79)
▲최진영(59)
▲장익수

◇社會大學
▲강승모(85)
▲김준수(65)
▲노세윤(82)
▲박종옥(73)
▲신철식(77)
▲유동윤(80)
▲이내수(78)
▲이승돈(78)
▲이준일(65)
▲이환호(77)
▲최명길(83)
▲최성일(77)
▲김승년(86)
▲김형기(76)
▲박영옥(83)
▲변금오
▲원표희(77)
▲윤영규(77)
▲이승돈(78)
▲이현조(57)
▲정두언(80)
▲최문식(79)

◇自然大學

◇家政大學

◇經營大學

◇工科大學

◇醫科大學

◇藥科大學

◇文理科大學

◇藥科大學

◇師範大學

◇農科大學

◇美術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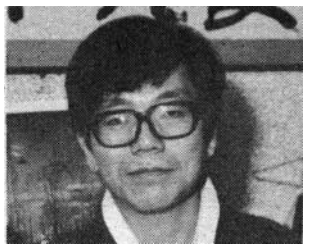
◇法科大學

◇師範大學

◇社會科學大學·音樂大學·體育大學·藝術大學·敎育·經營·家政·自然·工·農·醫·藥·文理·師範·美術·法·社會科學·音樂·體育·藝術大學 동창회 연락처 일람

同門作家 短篇選

"있어서" ㊤



朴泰洵

▲42년 黃海道生 ▲64년 文理大 英文科卒 ▲64년 思想界 新人文學賞으로 文壇에 데뷔 ▲主要創作集 「무너진 극장」 「정든 땅 언덕 위」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신생」 외다수 ▲주요산문집 「작가기행」 「국토와 민중」 「민족의 꿈, 사인의 꿈」 외.

아들과 아버지는 요근래 지루하면서도 끈덕진 냉전 상태에 돌입되어 있는 중이었다. 사회복지학과 3학년인 대학생 아들이 불적에 고등학교 물리과목 교사인 아버지는 전형적인 소시민에 구세대, 그리고 약간의 보수적인 기질조차 지고 있는 그런 인간형으로 규정될 수 있지 않은가 하였다. 이들은 모든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데에 어느덧 길이 들여져 있었는데, 아버지는 언제인가부터 아들의 이런 인식능력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뿐 아니라 화를 내고 노여워하는 것이었다. 『아니 그래 임마, 그래 이 애비가 너의 사회과학연구 논문의 테마대상이더란 말이냐?』 하고 언제인가 아버지는 고함을 질렀다. 박봉에다가 고된 근무에 시달리며 거기에다가 건전한 사회인 노릇을 하느라 인격 유지비 지출에 격워하는 아버지에 대해 아들은 몰론 효도를 하고싶고, 때에 따라서는 연민을 느끼는 것이지만, 대학생이라면 지식인 아니던가? 지식인 사전에 효도니, 연민이니 하는 언식 체계가 용납된다고 쓰여져 있던가? 『아버지는 아버지 울타리 속에 저를 가두어 놓으려고 하시는 것, 이젠 포기하십시오. 민주화는 봉건적인 가족관계의 모순 해소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민주화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어머니는 대체로 보아 아버지 편이었지만 어쩌다가는 아들 두둔을 하는체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맡는 것이었는데, 그러함에도 다분히 비아냥거리는 어조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었다. 『아이구, 그거 잘난 아들 덕분에 자꾸만 못난 아버지로 낙착되곤 하는 거, 옆에서 보기에 아름다운풍경은 아니구나』 말하자면 대체로 이런식이었다. 어머니 역시 고등학교 교사인데 담당 과목은 영어였다. 『다른 애들은 다 대모하더라도 너만큼은 해서는 안된다』 하는 소리를 빼놓지 않는, 그런 종류의 자식 사랑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역시 보수 반동적인 성향을 지닌 인간형이라 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아들은 한숨을 쉬면서 속으로 요근래 이 집안이 냉전체제에 돌입되어 도무지 땅뜨라든가 페레스트로이카 분위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들이 데모 대열에 끼었다가 10일 구류를 먹고 나온 탓이었다.

아들은 요근래 『사회갈등론』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해야 하는 참이어서 그 관계 서적을 읽고 있는중이었다. 팝송을 들어야만책 켜놓고 읽히게 되는 고교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아파트 응접실을 무슨 싸롱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봄 보토모어 FM방송을 들었다. 그리고 옛 세대의 나타남을통한 인적 자원의 끊임없는 순환과 같은 것이다. 관련된 사회의 유형에 닮려있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중요한 정치 변동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들로써 일어난다. 곧 새로운 기술의도입, 무역이나 전쟁, 왕정하의 유능한 또는 무능한 군주의 즉위, 탁월한 정치 지도자의 등장, 문화적·지적인 운동, 그리고 특정한사회 집단들의 상호 교섭, 안팎의 관계, 각 사회 그 중에서도독 특한 사회적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이나 종교적·문화적 집단 및 엘리트들의 등장과 몰락 따위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다. …운운』

결국 이 글의 요점은옛 세대의 사라짐과 새 세대의 나타남을 통한 인적자원의 순환이라는 것에 모아지겠구나 하고 아들은생각하면서, 『우리 집안도세대교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문득 두려움과 쓸쓸함을 함께느꼈다. 어머니는 빈게까지 학교 행사로 지쳐 있으니 『귀가 즉시 밀려 있는가 사 노동의 종사』라는 현실에 짜증이 날 확률이크며, 아버지는 유일의 스트레스 해소책인 음주 행위가 실제로는 새로운 스트레스의 확대재생산의 역할도 하게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 녀석에 대한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발휘라고 하는 제3의 스트레스 해소책을 강구해볼지 모를 우려가 있는 것이었다. 『갈등의 사회학』이 아니라 『갈등의 가족학』에 있어서 아들인 내가 그 갈등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그는 혹시 오늘밤에 닥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아무렴 반(半)장기 및 단기 상해 보았다. 구봉건적 가부장제 사회에있어서의 인간관계란 어느정도는 그것이 문제로 제기되지는 않았다. 아버지 컨디션이 괜찮으신 것 같군, 하고 아들은 생각하였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아버지는 그러나 아파트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에 얼굴을 찌푸렸다. 『이놈아, 그 음악 좀 끄지 못해? 그래 민중들이 팝송을 그렇게 좋아한다더냐, 이 민중주의자 녀석아.』

『저는 민중주의자가 못되는 걸요, 과학적인 민중론자의 하나일 수는 있어도…』 아들은 심상치 않은예감을 느끼면서 라디오를 껐다.

『얘, 윤필아, 그거 텔레비인지 타락판인지 어서 켜봐라, 그거 중계를 한다더라. 뭐시냐, 오공비리라는지 손오공 비위라는지』

아들은 텔레비전이 질색이었다. 저는 지금 책을읽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할까 하다가 윤필이는 『갈등 해소』라는 측면에서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였다. 화면 영상이 채나타나기도 전에 미친놈 목소리로 떠들어대는 씨엠송이 우박 쏟아지듯 하였다. 아마도 정규방송 프로를일단 끝내고 국회 청문회녹화방송을 하려 하면서 그 짬에 광고 방송을 한바탕 퍼부어대고 있는 모양이었다. 『온통 청문회 이야기뿐이더구나. 너 「청」이라는 거하고 「문」이라는 거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네?』

『글쎄요』

『청이라는 건 귀담아 듣는 거고, 문이라는 건 귀로 흘려 듣는 게다. 이 백성들에게 눈요기 꺼리에 귀동냥꺼리를 대주는 노릇이 얼마나 만만한 것인지, 이거 귀 후비개로 귀 소제부터 해두어야 하는지, 원』

역시 아버지는 소시민이라 했던가, 소시민은 저들 그러니까 억압자들이 뒤집어쓰고 있는 가면의 속을 간파하지 못한다고 하지않았던가, 움직이는 역사의교훈을 이해할만한 힘이 없으며, 세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 정치의 조직형태가 생산방법에 내재하는 논리의 요청에 의하여 개조되는 수준등,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그들의 태반은이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힘의 어느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따름이며, 그들이 오직 힘의지배를 느끼는 것은 그들의 사소한 생활 위에 닥쳐오는 막연하고도 완만한 세속적 변화들 어렴풋이 느낄 때일 뿐이라 하지 않았던가, 과연 저런 청문회가 정치 변동의 사회 갈등을 얼마만큼이나 밝혀낼 수 있을까.

『지금부터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비리 문제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읍니다』 하고 국회 5공비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기택 의원이 말하면서 의사봉을 탁, 탁, 탁 세번쳤다.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비리문제라…이상하지 않으냐?』 아버지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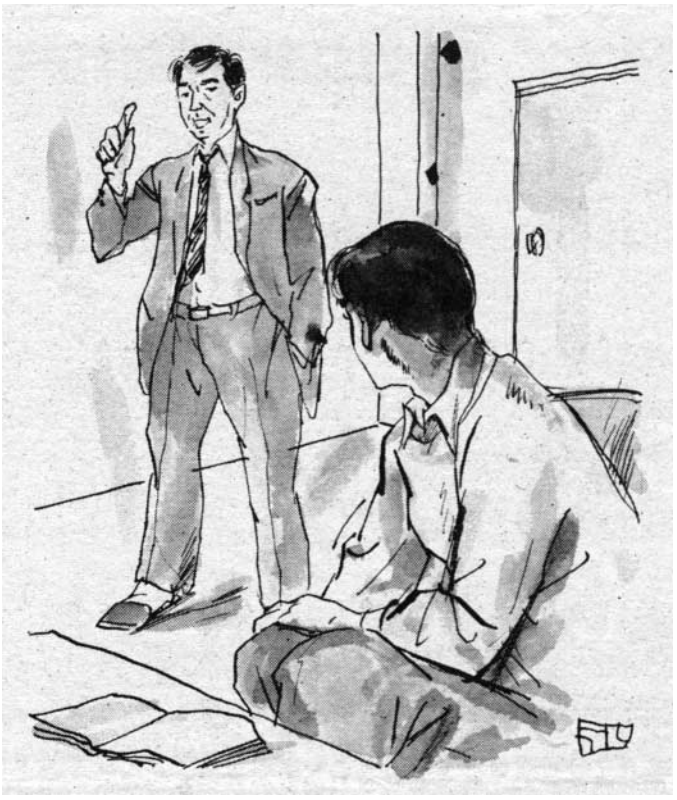
『뭐가요?』 윤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반문했다.

『민주정의당 안병휴 의원입니다』 텔레비전은 화면이 바뀌면서 이런 자기소개를 하는 첫 질의자의신문(訊問)이 시작되는 모습을 비춰주었다.

『제5공화국 시대에 일어난 부정부패 사건 청문회라고 표현해야 온당한 것 아니겠냐? 5공화국에 있어서의 비리 문제라니…그거 「있어서」, 「있어서의」 따위 표현이 어색하지 않으냐? 교수, 언론인, 문인, 너희들같은 의식화 대학생들의 말과 글에 오르락거리더니, 드디어는 국회의원들의 입에마저 발리게 됐나 보다. 「있어서」라니, 그래 있었다구 치자. 「있어서의」라니 있으면 있었던 것이지, 있어서의… 그 「의」가 도대체 어찌 됐다는 게냐? 나는 저런표현법, 그 어법이 아주 들기 싫어 못견디겠더라. 영어깨나 안다는 먹물잡이들, 일본말을 뇌까리는 통에왜놈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어투인게 분명타. 한국인의 생각하는 방식, 그 표현하는방식에는 「있어서」가 있었던게 아니고 없었지 무어냐?』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정말로 그렇단 말인가요?』

『인석아,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있어서」가있었지 않았을은 물론,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라는 식의 어투가 귀에거슬린다, 이 말이다』



學科別 지원상황

학과	모집인원	지원자수	경쟁률
국어국문	35	89	2.54
중어중문	20	40	2
영어영문	35	76	2.17
불어불문	30	73	2.43
독어독문	30	92	3.07
노어노문	20	62	3.1
서어서문	20	68	3.4
언어학	20	62	3.1
국사학	30	50	1.67
동양사학	20	42	2.1
서양사학	20	56	2.8
고고미술사학	20	42	2.1
철학	30	78	2.6
종교학	20	75	3.75
미학	20	83	4.15
정치외교	38	163	4.29
경제	38	137	3.61
국제경제	141	332	2.35
사회복지	75	289	3.85
인류	38	125	3.29
심리	28	66	2.36
지리	33	79	2.39
사회복지	33	75	2.27
신문	28	91	3.25
수학	28	127	4.54
계산통계	50	173	3.46
물리	50	115	2.3
천문	60	122	2.03
화학	15	63	4.2
식물	60	99	1.65
동물	15	24	1.6
미생물	15	32	2.13
대기과학	25	40	1.6
지질과학	15	85	5.67
지해양	25	88	3.52
의예	25	54	2.16
치의예	190	399	2.1
소비자아동	100	242	2.42
식품영양	40	91	2.28
의류영	40	85	2.13
경영	40	112	2.8
건축	235	662	2.82
공업화학	45	214	4.76
금속공학	35	131	3.74
기계설계	45	167	3.71
기계재료	45	115	2.56
부산업공학	50	152	3.04
섬유공학	30	63	2.1
원자핵공학	30	70	2.33
전자계산	40	207	5.18
전기공학	30	70	2.33
제어계측	40	163	4.08
조선	50	266	5.32
토목	40	74	1.85
환경	45	72	1.6
	40	66	1.65
	40	186	4.65
	60	231	3.85
	30	69	2.3

학과	모집인원	지원자수	경쟁률
화학공학	45	173	3.84
농화학	35	44	1.26
임학	40	51	1.28
축산학	50	102	2.04
농공학	65	141	2.17
농화학	40	94	2.35
농생물	50	86	1.72
천연섬유	25	161	6.44
농가정	35	69	1.97
원예	30	74	2.47
식품공	40	110	2.75
임산가공	35	96	2.74
조경학	30	92	3.07
농업교	60	123	2.05
농경제	40	142	3.55
동양화(남)	10	22	2.2
동양화(여)	9	22	2.44
서양화(남)	13	68	5.23
서양화(여)	13	48	3.69
조소(남)	13	47	3.62
조소(여)	12	27	2.25
공예(남)	10	42	4.2
공예(여)	9	31	3.44
산업디(남)	18	104	5.78
산업디(여)	18	40	2.22
법학	270	873	3.23
교육학	20	36	1.8
국어교육	35	93	2.66
영어교육	35	73	2.09
불어교육	15	30	2
독어교육	15	25	1.67
사회교육	25	51	2.04
역사교육	25	39	1.56
지리교육	25	53	2.12
국민윤리	30	62	2.07
수학교육	35	117	3.34
물리교육	30	87	2.9
화학교육	30	100	3.33
생물교육	30	65	2.17
지구과학	30	68	2.27
체육교(남)	43	295	6.86
체육교(여)	6	17	2.83
수의학	60	162	2.7
약학	40	97	2.42
제약학	40	155	3.88
성악	17	97	5.71
성악곡	17	51	3
작곡	15	31	2.07
작곡이론	10	36	3.6
피아노	34	104	3.06
현악	34	90	2.65
관악	19	74	3.89
국악	20	43	2.15
국악이론	3	7	2.33
국악작곡	4	7	1.75
국악성악	2	5	2.5
간호	75	93	1.24
계	(4,385)	12,385	2.82

89학년도 入試 평균 경쟁률 2·82대1

총 1만2천3백85명 지원

지난해 3·04대1보다 약간 낮아져

모교의 89학년 신입생 모집(정원 4천3백85명)에 총 1만2천3백85명이 지원, 평균 2·82대1로 지난해의 3·04대1보다 경쟁률이 낮아졌다.

「선지원 후시험」방식으로 입시제도가 바뀐 두 번째해인 이번 입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신 지원으로 막판 눈치작전이 거의 사라졌다.

◇소신지원이 많아 마감시간이 임박해졌는데도 접수창구는 그리 붐비지 않았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43명 모집의 사범대 체육교육과(남)로 2백95명이 지원, 6·86대1로 지난해(11대1)에 이어 또다시 최고경쟁률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농대 천연섬유과로 모집정원 25명에 1백61명이 지원, 6·4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에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과는 농대 응용곤충과로 모집정원 25명에 26명이 지원 1·04대1을 보였다.

그리고 법학과는 2백70명 정원에 8백73명이 지원, 3·23대1, 정치학과는 38명에 1백63명으로 4·29대1을, 기록하는등 전통적 인기학과가 올해에도 강세를보였다.

전년에 합격선이 가장 높았던 공대 제어계측공학과와 전자공학과는 눈치작전으로 각각 1·6대1과 1·6대1로 지난해의 2·4대1과 2·15대1보다 경쟁률이 낮아졌다.

이밖의 주요학과 경쟁률은 △경제 2·35대1 △경영 2·82대1 △영문 2·17대1 △의예 2·42대1 △치의예 2·42대1 △신문 4·54대1 △산업디자인 5·78대1 △물리 2·03대1 △대기과학 5·67대1 △서양화(남) 5·23대1등이다.

한편 학력고사는 12월17일 제1지망 소속학과에서, 그리고 합격자발표는 12월29일 모교 대운동장에서 하게 된다.

한편 예술및 체육계열 응시자는 12월18일부터23일까지 각 지원대학에서 실기고사를 치뤄야 하며 모든 합격자는 별도의 신체검사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에 응해야 한다(불응자및 결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모교가 지난달 밝힌 입시요강에서는 제2외국어만을 선택해야하는 단과대학이 인문대·사회대·자연대·농대·경영대·경제학과·미대·법대·사대·인문계열학과·약대·음대등으로 확정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의과대학 간호학과만이 심업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신입생의 선발기준은 모집단위별로 선발하되, 모집인원의 80%를 제1지망자중에서 성적순으로선발하고 여석은 1지망자중에서 선발되지 아니한 자와 제2지망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그래도 여석을 다 충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달인원을 제3지망자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그러나 예술및 체육계열은 모집인원의 1백%를 제1지망자중에서 선발하고 음악대학 기악과 현악전공, 기악과 관악전공, 국악과 기악전공은 모집인원의 범위내에서 기별로 선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교 교무과(직통 877-2991, 880-5021~2)로 문의하면 된다.

半導体공동연구소 준공

30억투자, 教育研究室 清淨室등 갖춰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준공되었다. 준공식은 지난 29일 신축건물(104동)에서 趙完圭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문교부장관, 체신부장관및 다수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사패의 대한 표창과 감로자들에 수여와 기초석제막식이 있었으며, 식이끝난후에는 연구소 내부견학과 축하연을 가졌다.

반도체공동연구소는 반도체분야에 대한 기초공동연구, 학부및 대학원생 실습교육, 기업체와의 공동연구및 기술자재교육등을 위하여 총 공사비 30억원으로 1985년에 착공되었다. 이연구소의 시설내역은 교육실및 연구실(3천4백㎡), 청정실(1천㎡), 표준CM OS공정나인 등이며, VLSI설계및 CAD연구, 화합물 반도체 재료및 소자 연구, VLSI설계및 공정교육 세미나개최, 시약및 재료 공급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特수전문요원 母校生43명 선발

1988년도 후기특수전문요원으로 모교에서는 총43명이 선발됐다. 이를 계열별로 보면 인문·사회계열은 현창흡(외교학)등 28명, 이공계열은 박길한(물리학)등 15명이다.

東亞 음악콘쿨에서 19명이 1위 入賞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제28회 「동아음악콩쿨」에서 모교생 14명, 졸업생 5명이 입상했다.

1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성악(男):문형길(성악·3) △작곡(양악):한수령(대학원·석사과정·2) △기악(피아노):구소영(기악·2) △기악(첼로):김소연(기악·1) △기악(바순):임현철(기악·3) △기악(혼):허인수(기악·4) △작곡(국악):유은선(국악·3) △성내악:윤경희, 신지숙, 김수현, 정효련(기악·卒)

母校소식

解禁書籍 5백여종 図書館서 열람가능

도서관이 지난 9월3일 일괄구입한 해금서적 4백49종 1천4백55권의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열람할 수 있게 된 해금서적은 작년10월에 해금된 4백31종과 지난 7월19일 해금된 납·월북작가의 작품들이며 도서관측은 겨울방학기간에 정리를 한 후 열람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계획이라고 밝혔다.